일본 중세 국가론의 현황과 과제*

박수철

1. 머리말

가마쿠라 막부 이래 무가(무사) 정권은 오래도록 실권을 장악했지만 천황(혹은 조정)이란 존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가 정권은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천황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천황이란 존재는 계속 존속했다. 천황과 쇼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일본이란 국가의 권력 구조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박수철(朴秀哲) 1966년생. 1989년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2000년 교토대학에서 일본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사학과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된 연구 관심은 일본 중세-근세 초의 정치사·사상사다. 주요 저서로는 『오다·도요토미 정권의 사사(寺社) 지배와 천황』(2012),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공저, 2014), 『아틀라스 일본사』(공저, 2011)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織田政権における寺社支配の構造」(2000), 「豊臣政権における寺社支配の理念」(2000) 등이 있다.

* 이 연구는 2010년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무가 정권의 시기에 일본의 국왕은 과연 누구인가? 쇼군인가? 천황[혹은 상황(上皇)=천황의 부친·원(院)이라고도 함]인가? 아니면 이 둘 모두인가? 양자의 복합체인가?

최근 불거져 활발하게 논의되는 일본학계의 왕권(王権)론도 따지고 보면 복잡한 전근대 시기 일본의 권력 구조를 해명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다.[1] 그러나 현재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왕권론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모태는 중·근세 국가론에 있다. 왕권이란 용어의 사용을 거부하고 "(왕권이란) 일본사에 있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직접 관련된 것"[2]이란 주장도 왕권론과 국가론의 관련성을 잘 지적한 것이다.[3]

그런데 일본 국가론 중에서도 중세 국가론은 그 논란의 폭이 크다. 천황을 중심으로 하나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단일 국가론, 교토 중심의 국가와 가마쿠라 중심의 국가가 서로 병존한다는 두 개 국가론, 아예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중세 무(無)국가론까지 실로 다기하다.

그렇지만 현재 중세 국가론의 출발점이 구로다 도시오(黒田俊雄)의 권문(權門)체제론과 사토 신이치(佐藤進一)의 동국(東國)국가론이란 사실에는 이론이 없다.[4] 무로마치 시대 국가론도 권문체제론과 동국국가론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무로마치 시대 국가론은 이렇다 할 통설이 없고, 전국다이묘'국가'론처럼 '국가'를 전면에 내세우는 학설도 있으나 후술하는 공무(公武)통일정권론이나 막부-슈고(守護)체제론처럼 기본적

1 왕권이란 문화인류학·상징인류학의 개념으로 Kingship의 번역어이다. 폴리네시아·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국가가 성립하지 않은 미개사회를 중심으로 권력의 발생과 권위의 존재 형태를 분석하는 개념"이다. 아라키 도시오(荒木敏夫)는 왕권의 의미를 ① 왕의 권력, ② 왕을 왕답게 하는 구조·제도, ③ 시대를 지배하는 자·집단의 권력으로 나누어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大津透, 「王権論のための覚え書き」, 『王権を考える』, 山川出版社, 2006, 6쪽).

2 河内祥輔, 「中世国家と政治体制」, 『王権を考える』, 100쪽.

3 당초 국가론은 권력의 권한·권력 기구를 중심으로 논쟁이 전개되었다. 1980년대 이후 왕권론이 등장하여 권위의 원천(혈통·이데올로기)으로 문제 관심이 확대되었다(網野善彦·上野千鶴子·宮田登, 『日本王権論』, 春秋社, 1988; 水林彪·金子修一·渡辺節夫編, 『王権のコスモロジー』, 弘文堂, 1998).

4 최근 가마쿠라 막부를 중심으로 자세한 연구사 정리가 이루어졌다. 남기학, 「鎌倉幕府論의 전개와 現狀」, 『동양사학연구』 126, 2014. 다카하시 노리유키(高橋典幸)는 동국국가론과 권문체제론에 기초하여 가마쿠라 막부의 성격을 고찰하고 있다(高橋典幸, 「鎌倉幕府論」, 『岩波講座日本歷史』 6·中世 1, 岩波書店, 2013, 100쪽).

으로 권력 구조나 운영의 규명에 그치거나, 아니면 오히려 '지역사회론'처럼[5] 지역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국가론적 시각 자체를 비판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 크게 보아 무로마치 전기는 중앙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무로마치 후기는 재지 사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기에 무로마치 시대에 관한 종합적 전체상은 매우 불분명한 편이다. 이 점이 현재 중세 후기 국가론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이하 이 글에서는 최근 '왕권'론의 토대가 된 권문체제론과 동국국가론을 비교 분석하고, 국가론과 관련된 무로마치 시기의 주요 연구 성과를 검토하여 향후 일본 중세 시대 전체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필자는 특히 일본 중세 후기를 '공무(公武)체제'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려고 하며,[6] 이 글은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사 정리 작업에 해당한다. 일본 중세 국가론 논의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과제를 검토하여 새로운 일본 중세 후기 전체상을 모색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5 '지역사회론'은 종래 중앙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던 슈고 지배를 지역의 자립성이란 시각에서 재지 사회의 움직임을 설명한다. 가령 에바라 마사하루는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일궁(一宮)에서 장향진수(庄鄕鎭守)에 이르는 지역적 신기(神祇)체계의 형성과 이에 대한 슈고의 장악 움직임을 논하고 있다(榎原雅治, 『日本中世地域社会の研究』, 校倉書房, 2001; 稲葉継陽, 「中世後期村落の侍身分と兵農分離」, 『歴史評論』 523, 1993; 稲葉継陽, 『戦国時代の荘園制と村落』, 校倉書房, 1998; 中世後期研究会編, 『室町·戦国期研究を読みなおす』, 思文閣出版, 2007 참조).

6 필자는 중세 권문체제(혹은 동국국가론)가 공무체제를 거쳐 근세 막번체제로 넘어간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공무의 '공'과 '무'는 각각 공가와 무가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공'은 단순히 공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구보(公方)·공의(公儀)와 같이 제(諸) 세력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집단 혹은 그 이념을, '무'도 쇼군과 슈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지 사회를 포함하여 '무위'(武威)를 갖춘 여러 세력을 포괄한다. 공무체제의 중요 정치 이념 중 하나가 '공무일통'(公武一統)이다. 가마쿠라 후기에는 '공가·무가'라고 병칭되는 용어가 많이 출현하고 양자의 합체 지향을 '공무일통'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무일통의 움직임은 중앙 권력이 미약해진 오닌의 난 이후에도 공가와 무가 사이에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으며(가령 이치조 가네요시의 『초담치요』(樵談治要)), 노부나가의 상경도 공가 측은 '공무일통'의 회복으로 받아들였다. 분열된 무로마치 시기지만 '공가일통'을 통한 중앙 권력의 재건 움직임은 상존했으며 오다·도요토미 정권은 이에 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공무일통'과 비슷한 맥락에서 '도비합체'(都鄙合體)라는 표현도 주목된다. 교토(都)에 거점을 둔 무로마치 막부는 가마쿠라 부(鄙) 등 간토 지역을 위시한 여러 지역과의 통합을 시도했고 이를 '도비합체'(合體)라고 했다[『蜷川家文書』 1(大日本古文書本) 107号].

2. 권문(權門)체제론과 동국(東國)국가론

1) 재지영주제론과 권문체제론의 성과

전후 일본 중세사의 통설은 무사의 출현과 성장을 중시하는 재지영주제론에 입각한 학설이다. 재지영주제론은 개발영주를 중심으로 고대 율령 국가의 와해와 중세 봉건국가(사회)의 성립 과정을 해명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농촌·변경에서 성장하여 수도의 귀족을 대신하여 권력을 잡은 무사(재지영주)를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시모다 쇼(石母田正)가 이러한 연구 과점을 이론화하여 이후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7]

이시모다는 헤이안 중기부터 남북조 시대까지 이가 국(伊賀國) 남부 산간 지역에 위치한 구로다 장원(黒田庄)의 역사를 이 지역의 주요 인물과 집단의 부침을 중심으로 생생히 묘사했다.

이시모다가 가장 먼저 주목한 인물은 헤이안 중기 이가 국 28개소에 영지를 가진, "당국(當國)의 맹자(猛者)", "국내(國內) 인민은 모두 그의 종자(從者)"라고 말해지던 후지와라 사네토(藤原實遠)였다. 사네토는 직접 개간한 전답 이외에 "일처(一處) ○○향(鄕) 사지(四至) 동은 ~에 한(限)한다. 서는 ~에 한한다. 남은 ~에 한한다. 북은 ~에 한한다"로 표시되는 유형의 토지를 소유했다. 이 유형의 토지는 무주황야(無主荒野)이자 개간 예정지로서 이를 개발하면 향후 재지영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사네토는 "소작료(加地子)를 거두지 않았다."라고 하듯 직접 토지 경영에 매달렸고, 주로 이에 필요한 요역 노동의 징수와 확보에 관심을 쏟았다. 사네토는 영내 농민을 지배 예속시키기 위해 사병(私兵)을 양성한 '맹자'였지만, 토지 개간을 통한 소작료 확보가 아니라 직할지 직접 경영에만 몰두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중세 무사는 아니었다. 그 후 독립성을 강화해 나간 농민은 도망 등으로 저항했고 사네토의 직접 경영도 파탄을 맞이한다.

7 石母田正, 『中世的世界の形成』(岩波書店, 1985, 원래는 伊藤書店, 1946년 간행)에 실린 이시이 스스무(石井進)의 「해설」(解說).

이시모다에 따르면 사네토의 몰락 이후 이가 국에 새로 진출한 세력은 도다이지(東大寺)였다. 나라(奈良) 시대 이래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입었던 도다이지는 율령제의 이완으로 그 지원이 크게 축소되자 스스로 타개책을 모색하여 인근 지역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2세기 전반 도다이지는 사네토와 그 자손이 가진 소유권을 매입하거나 혹은 기부를 받아 부근 일대를 구로다 장원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나아가 이가 국의 지방행정기관인 국아(國衙)를 압박하면서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런데 이 시기 구로다 장원 내에는 사네토를 대신하여 중세를 담당할 세력인 영주(무사단)가 성장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서는 미나모토노 도시카타(源俊方)가 가장 유력했다.

도시카타는 이 지역의 토착 세력이었던 이가 씨(伊賀氏)가 몰락하자 그 틈을 타 지방 행정의 실무 책임자인 군사(郡司)에 취임한 신흥 세력이었다. 사네토가 도시에서 이주하여 토착한 농촌 귀족이라 한다면 도시카타는 구로다 장원 내 야나세 촌(簗瀬村)을 기반으로 몇 대에 걸쳐 토지를 소유하고 중심 거주지에 거관(다치: 館)까지 구축한 본격적인 재지영주였다. 그러나 도시카타의 군사력은 2, 30명 정도에 불과했고 후일 간토무사단이 수백 정(町)을 기반으로 300명 정도의 인력을 보유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도다이지가 파견한 구로다 장원의 관리인(覺仁)은 300여 명을 동원할 수 있었다. 또 도다이지는 재지영주 세력을 억제하려고 부유한 일부 백성층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 들였다. 이 과정에서 도시카타는 배제되고 몰락했다. 이처럼 중세를 담당할 재지영주의 성장은 고대 세력 도다이지의 방해로 좌절된다. 이 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등장했으나 요리토모 역시 도다이지를 비롯한 사원세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고 이들과 타협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세적 세계의 성립은 이후의 과제로 계속 남았다.

이시모다 설은 구로다 장원을 배경으로 재지영주(도시카타)의 성장과 이를 가로막는 장원영주(도다이지)의 항쟁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장원영주=고대적 세력, 재지영주=중세적 세력으로 규정하여 양자를 대비시킨

점에 특색이 있다.[8] 그러나 그 후 연구가 진전되면서 장원영주나 재지영주나 모두 장원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9] 그 결과 계급적으로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시모다처럼 장원영주 도다이지와 재지영주 도시카타를 대립적인 관계로만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구로다 도시오(黒田俊雄)는 재지영주제론의 무사 중심 관점을 비판하고 귀족=고대, 무사=중세(봉건)의 대립이란 도식을 극복하려 했다.[10] 구로다는 재지영주와 장원영주의 대립 관계가 아닌 협조 관계에 주목하고 그 정치 시스템을 '권문(權門)체제'라 명명했다.

구로다에 따르면, 권문은 ① '권세 있는 가문', '권위·세력을 지닌 문벌가'를 뜻하며, ② 관직이나 관제상의 지위를 의미보다는 오히려 제도 외적 측면이 강하며, ③ 하나의 문벌가가 아니라 복수의 불특정 다수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중세 시대 권문은 공가[(公家=천황가 및 왕신가(王臣家)], 사가[(寺家=남도북령(南都北嶺) 등 대사사(大寺社) 및 공가의 씨사(氏寺)·씨신(氏神)], 무가[武家=무사의 동량(棟梁)·수장)]로 구성된다. 이들 권문 세력은 정치 수완 및 부유한 경제력이란 사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각각 현귀(顯貴)한 문관(文官)의 가문, 국가 진호의 기도, 무력 통솔을 통한 국가 수호라는 국가 차원에서의 직능적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권문은 일종의 카스트 제도로서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권력 기구를 담당했으며 어느 한 권문이 국가 전체를 완전히 독점하지는 못했다.[11]

8 재지영주는 고대적 세력인 장원영주 도다이지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성장했다. 이시모다는 재지영주들의 등장으로 기존 사상과 법 관념이 변화한 점에도 주목했다. 도리(「相傳領掌道理」)라는 용어의 등장, 씨사(氏社)씨신(氏神)의 권위 쇠퇴, 말법(末法)사상에 기반한 정토종의 확산 등의 변화가 나타났고, "종자(從子)는 주군에게 충을 다하고, 아들은 부모에게 효해야 한다"(北條泰時)고 하여, 귀족과 달리 무가는 부자 간의 효 이외에 막부에 대한 봉공(충)을 중시했다. 또 토지 상속과 관련하여 공가법(귀족)은 문서를 중시하는 반면 무가법(무사)은 전후 사정 등의 관습·도덕을 고려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노비도 무가법은 남자는 부, 여자는 모에게 귀속시켜 가축으로 다루어 모에 귀속시킨 율령(귀족)과 달랐다(石母田正, 「第4章 黒田悪党」, 『中世的世界の形成』).

9 永原慶二, 『日本封建制成立過程の研究』, 岩波書店, 1961.

10 黒田俊雄, 『日本中世の国家と宗教』, 岩波書店, 1975.

11 구로다에 따르면 권문에는 공통점이 있다. ①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정소(政所)·공문소(公文所)·문전(文殿)·구로도도코로(藏人所)·사무라이도코로(侍所) 등 중핵을 이루는 집무기관과 여기에 딸린 별당 이하의 가사제(家司制), ② 문서 발급 수속을 갖추고 있으며 만도코로 구다시부미(政所下文)·조쿠다시부미(廳下文)의 구다시부미(下文), 어교서(御敎書)·원선(院宣) 등의 봉서(奉書), ③

권문체제가 정립된 것은 11세기 후반 상황(上皇)이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던 원정(院政) 시대다. 이 시기에 이르러 각 권문의 통치 기구인 가사제(家司制) 확립, 장원 기진의 성행, 승병의 대두 등이 일반화된다. 구로다가 볼 때 가마쿠라 막부의 성립은 무가라는 독자적 정권의 출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바로 권문체제의 제2단계에 불과하며 슈고(守護)·지토(地頭)의 직권도 공가·사가 등의 권한과 상호 보완적이며 막부만이 국가 권력을 독점한 것도 아니었다. 어떤 개별 권문은 다른 권문을 압도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권문 간에는 상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자로서 국왕(천황)을 필요로 했다. 권문 간 상호 협조 체제는 국왕(천황)의 권한을 극도로 압축시켰지만 거꾸로 천황은 실권이 없었기에 권문의 조정자 내지 국가적 통합자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권문체제론이 등장한 이래 무가 세력의 성장과 고대 사회의 붕괴라는 재지영주제론적 단순 발전론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중세의 형성은 고대의 몰락"[12]이란 관점은 부정되고 오히려 재지영주와 고대 국가체제의 연관성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미 1930년대 마키 겐지(牧健二)는 일본 중세 사회의 특징인 이른바 직(職:시키)의 직무적 성격이 고대 관료와 장관(荘官)의 직무와 밀접히 관련된 것임을 해명했다. 마키는 무사가 농촌 변경의 개발영주로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율령 국가 권력에 기생하여 성장했다고 보았다. 권문체제론의 등장으로 수세에 처해 있던 재지영주제론자는 여기서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13]

이들은 고대 국가 권력과 연결된 군사층(郡司層)이 사영전주화(私營田主

가사(家司)를 비롯한 근신·시코인(伺候人)·부지인(扶持人)·요리우도(寄人)·사무라이(侍)·가인(家人) 등의 사적 주종조직 내지 사병, ④ 법령 제정과 재판권 소유, ⑤ 장원·지행국 등의 소령(所領)을 문벌이 직(職)으로 조직한 지행 체계 등이다(黒田俊雄, 『日本中世の国家と宗教』, 10~11쪽).

12 石母田正, 『中世的世界の形成』, 338쪽.

13 牧健二, 『日本封建制成立史』, 弘文堂, 1935. 마키의 이러한 논리는 후일 사토 신이치(佐藤進一)가 '봉건제도와 국가 통치권의 접촉'을 통해 막부의 성립을 해명하는 연구 방식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上横手雅敬, 「鎌倉·室町幕府と朝廷」, 『日本の社会史』 3·権威と支配, 岩波書店, 1987, 87쪽).

化)와 영주화(領主化) 과정을 통해 무사화했음과 가마쿠라 막부의 사적인 주종 관계에도 국가의 공권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헤이안 시대 이래 경찰과 검찰 역할을 담당했던 게비이시(檢非違使)와 무사를 결부시켰다. 그 대표적 연구자는 이시이 스스무(石井進)다.[14] 이시이는 무사와 공권(公權)의 관계를 중시하여 지방행정관청인 국아(國衙)가 무사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을 규명했다. 무사는 지방관인 국사(國司)가 주최하는 수렵에 참가했고, 국사는 이들에게 무(武)와 관련한 제역(諸役)을 부과하고 이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쓰와모노(兵)의 이에(家)'가 육성되고 이후 무사단으로 발전해 나간 사실을 밝혔다.

그 후 이시이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권문체제론도 비판했다. 그의 논지는 중세 국가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시이는 "중세 일본에 단일 국가기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그럴 정도로 명료한 상식적인 사실인가. 그렇다고 하는 전제 자체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권문체제론과 같이 중세 일본을 '단일'적 통일국가로 보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일본 중세를 단일 국가가 아닌 무(無)국가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15]

사실 일본 중세 무국가론의 원조는 다카야나기 미쓰토시(高柳光寿)다.[16] 다카야나기는 '율령 국가허구론'의 입장에서 고대에 완전한 형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통념을 비판하고, 지방 독립 세력이 중앙 정권에 흡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이들 세력이 완전히 중앙 정치 기구에 편입된 것은 (중세가 아니라) 근세를 기다려야 했다는 논지를 폈다. 다카야나기의 주장은 후일 전국다이묘'국가'론을 주장하는 가쓰마타 시즈오(勝俣鎮夫) 등에게도 이어진다.[17] 이시이도 다카야나기 설을 지지하여 중세 통일국가의 존재

14 石井進, 『中世武士団』(日本の歴史12), 小学館, 1974; 石井進, 『日本中世国家史の研究』, 岩波書店, 1970[뒤에 『石井進著作集』 1(岩波書店, 2004)에 재록].

15 石井進, 『石井進著作集』 1, 7쪽.

16 高柳光寿, 「中世史への理解 ―国家組織の発達について」, 『日本歴史』 8·9·10, 1947·1948.

17 다카야나기는 "중앙집권적 유기적 조직을 지닌 국가조직"으로 발전하는 전국다이묘영국을 일본 국가 성립의 원점으로 파악한다(勝俣鎮夫, 「戦国 大名'国家'の成立」, 『戦国時代論』, 岩波書店, 1996, 9쪽).

를 부정하고 국가의 틀이 아닌 재지영주의 자립성['이에(家) 지배의 자립성']을 중시했다.

중세 무국가론으로 정리될 수 있는 이들 주장은 중세 시기 통일국가의 존재에 의문을 품은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18] 『중세에 국가는 있었는가』라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중세 국가론을 해명한 닛타 이치로(新田一郎)도 이러한 입장이다. 닛타는 중세 국가 기구가 다양하고 다기한 중세의 여러 사회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근본 질서·구조를 갖추었는가에 회의적이다.[19] 닛타는 중세 사회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이른바 '자력 구제의 세계'가 일본 중세의 질서 구조 및 국가 권력의 실력 행사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본다. 또 재지 사회의 사적인 실력 행사가 어떻게 '공전'(公戰)의 형태로 전화하는가 하는, 즉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재지 레벨에서 중세 국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

이상의 논지를 포함하여 중세 국가를 통일적 단일 국가로 설정하고 권문 사이의 협조를 강조하는 권문체제론에 대한 비판은 다기하다.[21] 그러나 권문체제론이 헤이안 이후 가마쿠라 시기까지(중세 전기)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를 설명하는 데 매우 설득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일본 중세 사회가 끊임없이 분열되어 권력은 공가, 무가, 사가(寺社)로 나누어졌고, 천황가는 천황과 상황[즉, 치천(治天)의 군(君)]으로, 무가는 쇼군과 싯켄(執權=쇼군가의 집사·최고의 보좌역), 도쿠소[得宗=대대로 싯켄을 맡았던 호조 씨(北條

18 우와요코테 마사타카(上橫手雅敬)가 권문체제론이 '피지배 인민의 위에 전체로서 뒤덮고 있던 국가권력 기구'를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上橫手雅敬, 「鎌倉·室町幕府と朝廷」, 87쪽).

19 新田一郎, 『中世に国家はあったか』, 山川出版社, 2004.

20 新田一郎, 「日本中世の国制と天皇 —理解へのひとつの視座」, 『思想』 829, 1993.

21 가마쿠라 막부를 권문체제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에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① 형태적·표면적 측면만을 자의적으로 열거했으며, ② 공가·사사 등의 차이를 단순히 지배의 유형만으로 처리한 결과 그들 간의 차이가 불명확하며, ③ 겐지(源氏) 쇼군과 호조 씨의 차이를 비롯한 막부정치의 추이를 염두에 두고 봉건지배의 심화 발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선행 무사 연구의 수준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나가하라 게이지(永原慶二)는 권문체제론이 권력 형태 분석이란 정태적 분석이라고 비판하고 여러 세력 간의 움직임을 시야에 넣은 동태적인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세 국가론은 권력기구론보다 그 권력을 구성한 계급·계층구조에 기초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永原慶二, 『日本中世社会構造の研究』, 岩波書店, 1973).

氏)의 적장자] 등으로 분열했기 때문이다. 또 중세 사회의 물질 기반을 이루는 장원공령제 역시 중층적 토지 소유 관계·직의 체계 등 비집권적 분권적 요소로 구성되었다. 중앙의 권력 자체가 분열되어 약체화되었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 필요했고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데 권문체제론의 강점이 있다.

그러나 권문의 쇠퇴기인 무로마치 시기는 권문의 통합에 따라 일원화가 촉진(구심력 작용)되고 자립적인 지방 분권 세력이 성장(원심력 작용)하여 권문 상호 간의 협력·분쟁만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해진다.

2) 동국국가론의 한계

1950년대 제기된 이시모다 쇼·나가하라 게이지(永原慶二) 등의 재지영주제론은 가마쿠라 막부를 봉건 국가의 형성 과정으로 보고, 일본 중세를 고대적 권력인 공가 정권과 중세적 가마쿠라 막부가 병존하는 이중 정권의 시대로 이해했다. 1960년대에는 중세 국가론이 사실상 막부론에 불과하다는 반성에서 가마쿠라 막부와 공가 정권 전체가 민중을 지배하는 국가 기구의 실체를 추구하게 되었다. 여기서 1970년대 막부와 공가의 협조를 강조하는 권문체제론이 제기되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재지영주제론을 새롭게 발전시킨 연구가 나타났다.[22] 이것이 현재 권문체제론과 더불어 중세 국가론의 도달점으로 평가받는 사토 신이치(佐藤進一)의 동국국가론이다.[23]

당초 사토는 가마쿠라 막부='동국정권'론을 피력했지만,[24] 권문체제론의 주장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가마쿠라 막부를 단순한 자립적 '정권'이 아니라 교토의 왕조 국가와 더불어 양립한 또 다른 하나의 '국가'(동국국가론)

22 丸山幸彦, 「公武権力の對抗」, 『日本史を学ぶ』, 有斐閣, 1975, 76~77쪽.

23 佐藤進一, 『日本の中世国家』, 岩波書店, 1983.

24 사토는 가마쿠라 막부의 특질을 동국을 기반으로 한 자립성에서 찾았다. 이는 "도카이(東海)·도산(東山) 제국(諸國)의 연공, 신사·불사(佛寺) 및 왕신가령 장원은 원래대로 영가에 환부해야 한다는 선지가 내려졌다. 요리토모의 주청에 의한다"(『百練抄』 壽永 2年 10月 14日條)와 "전일 선지에서 말하길, 도카이·도산도 등의 장공(庄公)에 복종하지 않는 무리가 있으면 요리토모에게 알려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玉葉』 壽永 2年 閏10月 22日條)고 하는 문서를 조정에게서 획득(이른바 '동국행정권')함으로써 가능했다(高橋典幸, 「鎌倉幕府論」, 116~117쪽)

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25]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① 고대 율령 국가 해체 후에 등장한 국가는 왕조(王朝) 국가로서 중세 국가의 조형(祖型)이다. ② 12세기 말 동국에서 일어난 가마쿠라 막부는 독자적인 특질을 가진 또 하나의 중세 국가다. ③ 왕조 국가와 가마쿠라 막부는 상호 규정적 관계를 갖고 각각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사토는 고대 국가를 율령 국가로 규정하고 그 특질을 천황과 태정관(太政官) 사이의 권한 분장에서 찾았다. 사토에 따르면 율령제에서 천황의 뜻이 담긴 문서는 결코 홀로 발포할 수 없어 태정관부(太政官符)를 첨부하든가, 태정관부를 인용하는 형태로 반포되어 서로 상호 협조 체제를 이루었다.[26] 그러나 8세기 말 헤이안 천도 이후에는 태정관 중심의 중앙 기구도 재편되어 새로 설치된 구로도(藏人)와 게비이시(檢非違使)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로도는 천황의 명령을 출납하는 비서로서 천황과 태정관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고, 나중에는 천황가의 재정과 관련한 경제적 기능도 담당했다. 게비이시는 경찰·치안 활동을 통해 범죄 행위를 색출하고 이후 '추금추고'(追禁推拷: 범죄인의 수색·구금·고문)할 수 있는 강력한 관직으로 발전했다. 구로도와 게비이시는 원래 율령에 없던 영외관(令外官)이자 천황 직속의 관직으로 태정관의 지휘를 받지 않았다. 그 후 10세기에 이르면 엔기(延喜)의 장원정리령(902년)을 경계로 하여 율령 정부의 지방 지배도 태정관(중앙정부)이 직접 지배하는 방식에서 국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대폭 수정된다. 이를 통칭 왕조 국가라 한다.[27]

25 사토의 주장은 막부의 세력이 전국에 미쳤지만 강력한 실질적 지배는 동국에 그친 것으로 보는 견해다. 가마쿠라 막부 지배권의 본질을 전국이 아니라 동국에 한정한 점은 가마쿠라 막부를 여러 권문 중의 하나로 보는 권문체제론과 인식을 같이한다(上権手雅敬, 「鎌倉·室町幕府と朝廷」, 1987, 86쪽).

26 佐藤進一, 『(新版)古文書学入門』, 法政大学出版局, 1997, 55~59쪽.

27 도다 요시미(戸田芳實)는 10세기 이후 국가를 율령 국가와 구별하여 왕조 국가라 명명했다. 사카모토 쇼조(坂本賞三)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왕조 국가체제론라 했다. 특히 전기 왕조 국가체제의 성립으로 대폭적인 행정·징세권을 이양 받은 국사가 가혹한 수탈에 나서 이에 재지영주층의 저항이 거세지자 1040년대 조정은 공전관물율법(公田官物率法)을 통해 국사의 과도한 수탈을 억제하고 재지영주의 소령(所領) 형성을 인정했는데 이를 후기 왕조 국가체제라 지칭했다(上島享, 『日本中世社会の形成と王権』, 名古屋大学出版会, 2010의 「本書の目的と視角」 참조).

그런데 율령 국가가 왕조 국가로 전환하면서 국가 편성 원리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바로 특정 씨족이 특정 관직을 세습적으로 취임(특정 관청을 세습적으로 운영)하는 현상이다. 사토는 이를 관사청부제(官司請負制)라 명명했다.

관사청부제는 특정 관직(職)과 특정 이에(家)가 결합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가령 대대로 산도(算道: 수학·계산)의 업무를 담당했던 오즈키 씨(小槻氏)는 변관국(弁官局)의 대·소사(大·少史)의 관직을 역임했다. 변관국이란 태정관이 결정한 사항을 해당 실무 담당 부서(八省)에 전달하는 핵심 부서로서 좌변관과 우변관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좌변관은 대변(大弁)·중변(中弁)·소변(少弁) 각 1인, 대사·소사 각 2인, 사생(史生) 10인, 관장(官掌) 2인 등으로 구성된다. 오즈키 씨의 직계 자손은 모두 핵심 실무 관직인 좌대사(左大史)에 올라 변관국을 독점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태정관 외기국(外記局) 소속의 기요하라(清原)·나카하라 씨(中原氏)다. 9세기에 들어와 구로도도코로가 설치되면서 외기국 소납언(少納言)의 천황 비서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외기국은 대소외기(大·少外記)와 인사 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기요하라·나카하라 씨가 대외기의 수장직을 맡았다. 10~11세기에 이르러 기요하라·나카하라 씨는 인사 관리의 국정 관계 문서를 처리하는 외기국의 실무를 전담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12세기 초반이 되면 특정 씨족이 특정 관사(官司)의 일을 청부하고 관사 운영을 가업화(家業化)하는 현상이 뚜렷해진다.

고대 율령 국가가 중세 왕조 국가로 전환된 반세기 후에는 영주무사층(領主武士層)을 중심으로 동국 국가가 성립한다. 그러나 가마쿠라 막부도 왕조 국가처럼 관사청부제를 국가 편성의 핵심 원리로 삼았다. 가마쿠라 막부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왕조로부터 받은 제국 수호권(諸國守護權)을 일본 66개 국(國)의 총슈고(總守護), 총지토직(總地頭職)으로 파악했다. 사토에 따르면 이는 치안경찰 업무의 독점적 청부권으로서 이 역시 일종의 관사청부제(官司請負制)였다. 물론 그 대상이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전국적이란 점, 주종제의 영향으로 직무의 통합 경향이 강했다는 점에서는 왕조 국가와 달랐지만 특정 씨족이 특정 관직을 독점한다는 관사청부제의 핵심 원

리는 동일하게 관철되고 있었다.[28]

사토 설의 핵심은 일본 중세 국가를 왕조 국가와 가마쿠라 막부(동국 국가)의 병존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관사청부제라는 동일한 편성 원리가 통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점에 있다. 그 결과 무사의 성장과 귀족의 몰락이란 단선적인 구조의 기존 재지영주제론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토처럼 과연 가마쿠라 막부를 독립된 '국가'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었다.[29] 또 관사청부제와 같은 가업의 논리만으로 왕조 국가의 국제(國制)를 특징화할 수 있는가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30] 왕조 국가나 가마쿠라 막부나 관사청부제라는 특정 씨족 중심의 운영 체제라면, 그래서 이러한 사적 가정(家政) 기관을 초월한 '국제'가 존립할 여지가 없다면 과연 이를 국가라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중세에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무국가론이나 국가가 아닌 '권문'으로 보는 권문체제론이 당시 실상에 좀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우와요코테 마사다카(上横手雅敬)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봉기의 기치를 올린 1180년(治承4) 말에 일단 동국 국가가 수립되었으나, 1183년(壽永2) 10월 조정의 선지(宣旨)를 받음으로써 동국 국가는 소멸하고 공가 중심의 기존 국가에 흡수된 것으로 보았다.[31] 물론 우와요코테도 가마쿠라 막부가 일개 권문 이상의 자립성을 갖고 있으며, 그 자립성은 동국에 국한되지 않

28 가마쿠라 막부는 동국 호족영주층의 정치적 이해를 반영하여 합의제에 기초한 싯켄 정치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13세기 후반 호조 도키무네(北條時宗) 집권기부터 막부 정치는 호조 씨가 사실상 장악했다. 사토에 따르면 이러한 호조 씨의 막부 요직 독점은 관사청부제의 관념이 도입되어 이를 합리화한 측면도 적지 않다(佐藤進一, 『日本の中世国家』, 134쪽).

29 가마쿠라 막부는 완성된 국가가 아니라 미연(未然)의 국가에 불과하며 또 '국가' 구조의 차이라기보다는 정치 구조의 지역 차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新田一郎, 『中世に国家はあったか』, 46쪽).

30 村井章介, 「佐藤進一著『日本の中世国家』によせて」, 『中世の国家と在地社会』, 校倉書房, 2005.

31 우와요코테는 단일 국가론을 주장하는 권문체제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다(上横手雅敬, 「鎌倉幕府と公家政権」, 『岩波講座日本歴史』 5, 岩波書店, 1975; 上横手雅敬, 「鎌倉·室町幕府と朝廷」). 이에 대해 고미 후미히코(五味文彦)는 중세 국가에 근대 국가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사토의 동국국가를 지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五味文彦, 「初期鎌倉幕府の二つの性格」, 『日本歴史』 345, 1977). 왕권론의 입장에서도 고미는 교토의 왕권과 가마쿠라의 왕권이 병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五味文彦, 『日本の時代史』 8 京·鎌倉の王権, 吉川弘文館, 2003; 五味文彦, 「東国の王権」, 『王権を考える』)

는 전국적인 것으로 보면서도 '국가'라는 단어는 피하고 있다.[32] 이토 기요시(伊藤喜良)도 이런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33]

아미노 요시히코는 "동국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사가(史家)"와 "일본국 의식을 강조하는 사가(史家)"가 있다고[34] 양자를 대립적으로 파악했으나, 사실 동국국가론이나 권문체제론이나 중세 국가를 보는 관점에는 유사점이 많다. 사토의 관사청부제가 관사 운영을 씨족의 가업이란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면 구로다의 권문체제론은 국정 집행을 제(諸) 권문의 권한 분장으로 본다. 전자는 중세 국가의 국정 운영을 특정 씨족, 후자는 권문이란 사적(私的) 운영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국가 공권적 측면이 아닌 사적 측면을 중세 국가의 핵심 원리로 파악하는 점에서 사실상 공통점을 갖고 있다.[35] 또 이 사적 측면을 확장시켜 분권성(원심력)을 강조하면 중세 무국가론으로 이어지지만 권문체제론과 동국국가론이나 막부와 조정의 관계를 중시하여 중앙 중심의 일정한 구심력을 강조하는 편이다.[36] 중세 국가를 파악할 때 이러한 집권성과 분권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점은 무로마치 시기도 마찬가지다.

32 동국국가론의 핵심인 가마쿠라 막부의 특질과 관련하여 이를 재검토하려는 연구가 눈에 띈다. 가마쿠라 성립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특수성을 중시하는 연구다. 이루마다 노부오(入間田宣夫)는 가마쿠라 막부가 보편적이고 당연한 결과물이 아니라 동국의 특수한 국지적 무장 세력에 의한 군사적 승리의 산물로 본다(入間田宣夫, 「守護·地頭と領主制」, 『講座日本歴史』 3·中世 1, 東京大学出版会, 1984). 가와이 야스시(川合康)도 선지(宣旨)·칙허(勅許) 획득 등 조정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공권위임'론적 기존 시각을 비판하고 실제 가마쿠라 막부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동태적 파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가와이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반란군에서 시작한 점을 중시한다. 요리토모는 반란군이었기에 적대 세력의 영지를 몰수하고 이를 은상(恩賞)으로 자기편에게 줄 수 있었다. 본래 영지 수여는 조정의 권한이었으나 반란군에서 시작한 요리토모는 조정에 대한 상당한 자율권을 갖고 있기에 영지 수여가 가능했다(川合康, 「鎌倉幕府研究の現狀と課題」, 『日本史研究』 531, 2006). 후술하는 것처럼 무로마치 시대는 막부보다는 슈고나 전국다이묘의 국인, 국 편성보다는 재지의 자율성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마쿠라 막부도 국가론이 아닌 시각에서 파악하려는 연구가 눈에 띈다(平出真宣, 「戦国期政治権力論の展開と課題」, 『室町·戦国期研究を読みなおす』).

33 伊藤喜良, 「中世国家の特徴と東国·奥羽の支配秩序」, 『中世国家と東国·奥羽』, 校倉書房, 1999, 46쪽.

34 網野善彦, 『東と西の語る日本の歴史』, そしえて, 1982.

35 井原今朝男, 『中世の奥家と天皇·儀礼』, 校倉書房, 2012, 34쪽.

36 다카하시 노리유키(高橋典幸)는 동국이란 독자적인 지역 공간의 확립을 중시하는 동국국가론이나 치안·경찰 기능이란 막부의 직능을 중시하는 권문체제론이나 실제로는 양자 모두 조정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한다(高橋典幸, 「鎌倉幕府論」, 100쪽).

3. 공무(公武)통일정권론과 전국다이묘(戰國大名)'국가'론

1) 공무통일정권론과 왕권론

중세 국가론과 관련하여 "권문체제론 혼자만의 승리"라고 평가하듯이[37] 동국국가론보다 권문체제론을 지지하는 연구자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구로다 씨의 체제 개념인 권문체제론은 전국 시대라는 시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구로다 씨의 권문체제 개념은 엄밀히 말해 중세 시기 전체를 설명하는 체제 개념이 아니다"[38]는 비판이 있듯이 권문체제로는 무로마치 정치체제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현재 무로마치 시기 국가론은 의외일 정도로 권문체제론과 같은 통일된 국가론이 없다. 국가의 전체 기구를 해명하기보다는 공무통일정권론이나 막부-슈고(守護)체제론처럼 중앙의 권력을 분석하는 데 치중하거나, 반대로 국가가 아닌 지역이나 재지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무로마치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도 매우 큰 괴리를 보인다.[39]

무로마치 권력론의 출발점은 사토 신이치(佐藤進一)의 무로마치 막부론이다.[40] 사토는 무로마치 쇼군 아시카가 씨의 발급문서를 분석하여 권력자 간에 권한이 어떻게 분점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고찰했다.

1대 쇼군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쇼군 직할령의 경영과 개인 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만도코로(政所), 무사의 통제·군사 지휘를 담당하는 사무라이도코로(侍所), 무사의 은상 신청을 수리·심의하는 온쇼가타(恩賞方) 등 사적 주종제적 지배에서 유래하는 기능을 관장했다. 반면 다카우지의 동생 아시카가 다다요시는 평정(評定)·토지 지배 보증(安堵方)·재판(引付方)·종교(禪律方)·관직·관위(官途奉行)·기록(問注所) 등 재판·행정에 관한 이른바 공적

37 桜井英治,「中世史への招待」,『岩波講座日本歴史』6·中世1, 岩波書店, 2013, 7쪽.
38 矢田俊文,「戦国期宗教権力論」,『講座蓮如』4, 平凡社, 1997, 27쪽.
39 中世後期研究会 編,『室町·戦国期研究を読みなおす』에 실린 여러 연구사 정리 논문 참조.
40 佐藤進一,「室町幕府論」,『岩波講座日本歴史』7·中世 3, 岩波書店, 1963.

통치권적 지배와 관련된 기능을 관장했다. 사토는 이를 각각 '주종제적 지배의 원리'와 '통치권적 지배의 원리'라고 명명하고 무가 정권은 사적 편성 원리와 더불어 국가 공권을 필요로 했음을 명확히 했다.

또 사토는 무로마치 막부가 사무라이도코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왕조(천황가)의 게비이시청(檢非違使廳)을 무력화시키고, 이를 통해 교토 지역 내 도시민 지배→토지 지배→상업 지배순(구체적으로 경찰→치안→토지에 관한 행정·재판→채권 관계의 재판→특정 상인에 대한 과세 순)으로 장악해 나간 과정[이른바 '교토시정권'(京都市政權) 탈취]을 규명했다. 이러한 사토의 연구 방식을 일반적으로 '권한흡수론'이라 한다.[41]

사토의 연구 방식을 원용하여 권문체제론과 정합성을 추구한 연구가 도미타 마사히로(富田正弘)의 공무통일정권론이다.[42] 현재 무로마치 막부 권력론의 도달점으로 평가받는 공무통일정권론은 무가의 권한 분장 방식에 주목한 사토의 연구 방식을 원용하여 천황의 권한 분장 방식에 주목했다.

도미타는 천황이란 존재를 ① 고대 이래 율령제의 중앙 정치 기구를 맡아 온 천황=태정관제상의 천황과, ② 중세 공가 정치의 실질적 정무를 담당한 원정(院政 혹은 親政)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무로마치도노(室町殿: 아시카가씨 종가의 가장)가 이러한 천황의 권한을 어떻게 파악하고 장악했는가를 분석했다.[43]

41 사토의 연구 분석 방법은 권력자·기관의 '권한' 분장을 분석하고 그 권한이 어떻게 변화, 이전했는가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주요 권력(가령 무로마치 권력)의 특질을 다른 정치권력(가령 왕조 국가·본소권력·슈고 다이묘 권력) 간의 대항 관계, 특히 막부 이하 제 권력 상하 간의 권한 분장과 조절, 그 변화와 이전의 문제를 분석하여 특질을 추출하는 방식이다(佐藤進一, 「室町幕府論」, 3쪽). 그러나 나약한 권력밖에 갖지 못한 북조에게서 권한을 흡수했다는 논리상 모순을 지적한 연구(松永和浩, 「南北朝·室町期における公家と武家」, 『室町·戦国期研究を読みなおす』, 思文閣出版, 2007), 경찰·재판상 막부 측이 권한을 흡수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도시·상업 과세도 무로마치 막부의 일방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라 엔랴쿠지와의 관계가 중요했다는 지적도 있다(早島大祐, 「公武統一政権論」, 『首都の経済と室町幕府』, 吉川弘文館, 2006).

42 富田正弘, 「室町殿と天皇」, 『日本史研究』 319, 1989.

43 도미타에 따르면 천황에 부여된 권한은 개원·국군제(國郡制)·신분제 등 국가적 권능으로 여기에는 동국도 지배의 범위에 포함된다. 반면에 상황(치천)의 왕권은 지토령을 제외한 본소령에 범위가 국한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담당 범위는 달랐다. 또 당시 말법(末法)사상이 유행하여 천황=태정관제가 이상적인 정도(正道)이지만 장원제·관사청부제·치천의 왕권은 말세에서 통용되는 권도(權道)로 받아들여졌다. 문서 양식 측면에서도 천황=태정관문서는 한문체·진서체(眞書體)의 공식 양식 계통의 문서인데 비해, 원선(院宣)이나 윤지(綸旨)는 소로분(候)체·행서체(行書體)의 서찰 양식의 문서

도미타는 기본적으로 권문체제론을 지지하면서도,[44] 사토처럼 무로마치 도노가 원정 이래 일본 국왕인 상황[上皇: 치천(治天)의 군주(君)라고 함] 권력을 장악하여 사실상 그 권한을 흡수했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사토와 달리 여전히 천황가에 율령제=태정관제에서 유래하는 권한이 일정 부분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즉, 도미타는 무로마치 시기의 정치체제를, 무가가 새로 장악한 '치천의 왕권'과 여전히 흡수되지 않고 남겨진 '공가 측 정무'의 이중 구조로 파악했다.[45] 그렇지만 무로마치도노는 상황과 동화하여 사실상 일본 국왕이 되어 여러 권문을 주종제적으로 지배(영지 지배 보증·처분, 재판권 행사, 관위특권 사여)했다. 도미타는 이러한 정치권력을 공무통일정권이라 명명했다.

그런데 공무통일정권은 공가와 무가의 사이를 연계해 주는 전주(傳奏)를 핵심 요소로 한다. 전주란 원래 상황(院)·천황(天皇)의 명령을 대행하는 공경(公卿=藏人頭)이었으나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 시기가 되면 무로마치도노에게도 명령을 받는 공무 양속·공무 공용의 제도로 된다. 무로마치도노는 이러한 전주를 매개로 천황·상황을 통제했다.

도미타는 사토처럼 무로마치도노가 상황(院=治天)을 대신하여 '왕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면서도 중요 정치는 권문체제론처럼 무로마치도노와 조정 간의 합의, 즉 공무(公武)에 양속된 전주를 매개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했다. 공가에게 일정한 권한(이른바 '공가 측의 정무')이 여전히 남아 있고 공가와 무가 사이의 상호 '협조'라는 점에서는 권문체제론과 유사하지만, 종래 상황이 가진 권한을 무로마치도노가 흡수 장악했으며 천황·상황과 함께 운영

였다(富田正弘, 「室町殿と天皇」, 13쪽).

44 단 도미타는 일본 국왕을 천황으로 보는 권문체제론과 달리 상황(원)을 국왕으로 본다(富田正弘, 「室町殿と天皇」, 12쪽).

45 '공가 측의 정무'란 천황가가 왕권을 잃은 후 고쇼에서 행한 공무(公務)다. 평정시(評定始)·주사시(奏事始)의 의식, 시가(詩歌)·관현(管弦)·축국(蹴鞠)의 예능, 화한(和漢)의 학문, 기도불사(祈禱佛事) 등이다. 또 천황의 권한인 개원과 관위의 수수, 각종 절회(節會), 금기(禁忌), 포상, 특전의 부여, 천대직(遷代職)의 보임 등을 포함한다(富田正弘, 「室町殿と天皇」, 19쪽). 최근에는 도미타가 제시한 '공가 측의 정무'에 관한 연구도 심화되고 있다(久永俊和, 『室政期の朝廷公事と公武関係』, 岩田書院, 2011).

하기는 하나 균등한 공동 통치가 아니라 무로마치도노를 우위로 본 점에서는 권한흡수론의 사토설과 유사하다. 이 점에서 '공무통일정권'론은 권문체제론과 사토설을 정합적으로 통합하여 무로마치 시대의 권력 구조를 해명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무로마치 시기는 공가·사사를 포함한 권문의 힘이 약화되었고 무로마치도노의 권한(왕권)은 강화되었다고 해도 무로마치도노 못지않게 재지영주(무사)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슈고의 영국 지배의 힘도 커졌다.

도미타는 공무통일정권을 설명하면서 무로마치도노가 슈고영국제(守護領國制)와 권문체제 위에 선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통일정권과 슈고영국의 관계(혹은 권문체제와 슈고영국의 관계)에 관한 설명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이는 공무통일정권론이 공가와 무가의 권력 구조 분석에 그치고 이를 포괄한 국가론적 시각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가마쿠라 시대와 달리 무로마치 시대는 중앙 권력에 대항하는 자립적 지역 세력의 움직임이 활발하나 공무통일정권론은 권력 구조 자체 분석에 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다. 더욱이 공무통일정권이 기능하는 데 핵심을 이루는 전주(傳奏)라는 관직에도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었다.[46] 또 공무통일정권이라 해도 기실 '공무 통일'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는 전주에 국한된다. 이 때문에 공무통일정권은 지나치게 확대된 해석 내지 일반화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향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공무통일정권의 실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무통일정권론이 현재 무로마치 전기 공가와 무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무로마치 쇼군의 권위가 크게 약화된 오닌(應仁)의 난 이후의 전국 시대는 해명

46 전주를 공무통일 정권의 근거(足場)로 보는 도미타와 달리 오가와 마코토(小川信)는 전주는 공가의 내부기관으로 무로마치 막부가 이를 기생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또 도미타는 요시미쓰·요시모치 시기에는 원(院)과 공유했던 전주가 6대 쇼군 요시노리가 암살된 가키치의 난 이후에는 무로마치 막부에 전속된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이토 기요시(伊藤喜良)는 요시미쓰 시기 쇼군의 봉자(奉者) 역할을 했던 전주가 요시노리 암살 이후에는 조정으로 회귀했다는 입장을 취한다(伊藤喜良, 『日本中世の王権と権威』, 思文閣出版, 1993; 富田正弘, 「室町時代における祈祷と公武統一政権」, 『中世日本の歴史像』, 創元社, 1978).

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47] 또 도미타의 '통일'이란 용어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도미타의 주장대로 무가 무로마치도노가 상황 측 권력을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가 측 정무'라는 천황 측의 독자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이를 과연 '통일'정권이라 부를 수 있는가? 이미 요시미쓰 시기를 공무'통일' 정권이라 한다면 그 후 실질적인 무가 우위의 통합이 이루어진 근세 막번체제의 '통일'은 그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도미타는 이 부분에 언급이 없다. 전반적으로 도미타가 의미하는 '통일'의 개념은 모호하다.[48]

한편 도미타와 달리 사토의 권한흡수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극대화한 이론이 이마타니 아키라(今谷明)의 '황위찬탈계획'론이다.[49] 황위 찬탈의 실상과 관련하여 이를 의문시하는 견해도 있지만,[50] 이마타니의 관점 자체는 무로마치 권력론뿐만 아니라 최근 논의되는 왕권론과 관련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마타니에 따르면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천황에게서 빼앗으려 한 권한은 ① 제사권[요시미쓰의 거처인 북산제(北山第)에서 국가 최고 기도를 행하고 국가 기도권을 장악, 신기(神祇)에는 간여하지 못했으나 음양도를 통해 보완], ② 서임권[관위·제목(除目) 등 서임에 간여], ③ 황위 계승권(고코마쓰 천황을 즉위시킴), ④ 개원(요시미쓰의 의향 반영) 등이다. 이들 권한에 의거하여 요시미쓰는 천황·상황에 준한 의례[① 관직을 서임할 때 상황에게 했던 '배하주경'(拝賀奏慶)의 의식을 자신 앞에서 행함, ② 참내(參內), 엔랴쿠지 방문, 서찰례 등에 상황·천황에 준한 격식을 갖춤, ③ 자기 아들

47 최근 종래 전형적으로 파악했던 요시미쓰·요시노리의 시기를 특이한 예외적인 시기로 파악하고 오히려 무로마치 시대 국가·정치체제의 전형을 요시모치·요시마사 시기에 두는 연구도 적지 않다(松永和浩,「室町期公武関係論の現狀と課題」,『室町期公武関係と南北朝内亂』, 吉川弘文館, 2013).

48 근래 공무 관계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전란기라는 동태적 동향을 분석하거나 '공가화'의 의례 및 과정을 추구하는 등 공무통일정권론의 내용을 더욱 세밀히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론적 시각에서 보면 중앙의 막부와 공가의 관계에만 분석이 치우쳐 전체상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가론 자체를 왜소화하는 경향성도 보인다(水野智之,「室町時代の公武関係」,『室町時代公武関係の研究』, 吉川弘文館, 2005).

49 今谷明,『室町の王権 ―足利義満の王権簒奪計画』, 中公新書, 1990; 今谷明,「義満政権と天皇」,『講座前近代の天皇』2, 青木書店, 1993; 今谷明,『戦国大名と天皇』, 講談社, 1992.

50 河内祥輔,「日本中世の朝廷·幕府体制」,『歷史評論』500, 1991; 新田一郎,「日本中世の国制と天皇」. 村井章介,『分裂する王権と社会』, 中央公論社, 2003; 池享,「中世後期の王権をめぐって」; 大津透 編,『王権を考える』, 三川出版社, 2006.

요시쓰구의 성인식을 친왕에 준하여 거행]를 행하도록 했다. 이런 의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요시미쓰가 모계 쪽으로 준토쿠(順德) 천황의 후손에 해당하며 고엔유 천황과 혈연관계(종형제)였다는 혈통[요시미쓰의 처 히노 야스코는 준모(准母), 요시미쓰는 고코마쓰 천황의 준부(准父)가 됨] 때문이었다. 또 요시미쓰는 천황 측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이 시기에 유행한 유교적 방벌론 및 '백왕설'(百王說) 유포 등 왕위 찬탈의 이데올로기도 적극 활용했다.

이마타니는 권한 분장에 한정된 사토의 권한흡수론을 넘어 의례와 제사권까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개원이나 황위 계승과 달리 제사는 천황만에게 귀속된 고유 행위이자 의례였다. 그러나 무로마치 시대에 이르러 요시미쓰는 천황가의 중요 제사·종교 의례인 후칠일어수법(後七日御修法), 대원수법(大元師法)에도 개입했다.[51] 요시미쓰는 후칠일법을 수행하는 도사(導師)의 인선을 행했고 율령 이래 중요 제사인 기년제(祈年祭)나 신상제(新嘗祭)의 모든 비용도 지불했다. 이를 통해 요시미쓰는 국가 기도권을 확보해 나갔다. 물론 천황가의 율령 제사는 여전히 유지되었지만, 요시미쓰는 이를 상회하는 '무가의 제사'를 창출하여 자신의 저택에서도 궁정 제사인 후칠일법과 대원수법을 거행했다. 나아가 중국의 음양도를 도입하여 결과적으로 천황가의 제사권을 제약했다.[52]

이마타니가 다루는 대상은 왕권의례, 신분제, 혈통,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은 권력론에 치중된 국가론적 시각을 벗어나고자 하는 왕권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 중에서도 중세 일본 국가의 권력 주체를 쇼군과 천황(상황)으로 보고 양자의 역할을 모두 인정하는 복합왕권론이 주목된다. 전통적으로 재지영주제론의 이시모다는 쇼군=국왕

51 후칠일법은 정월 초하루부터 7일까지 계속된 궁중절회(宮中節會)가 끝나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궁중의 진언원(眞言院)에서 '옥체안온'(王体安穩)과 '진호국가'(鎭護國家)를 비는 밀교(密敎)의 기도다. 대원수법은 대원수명왕을 주존(主尊)으로 하는 진언종 대법(大法)의 하나로 '치국지보'(治國之寶), '승적지요'(勝敵之要)라고 칭해 조적(朝敵)의 저주를 핵심 요소로 한다.

52 다만 요시미쓰도 율령 제사의 근저를 형성하는 신기(神祇)·신도는 천황가의 선조 숭배 성격을 갖고 있기에 개입하지 못했고 불법(佛法)과 음양도(陰陽道)에 간여했다는 점은 요시미쓰 정권의 한계를 말해주는 부분이다(今谷明, 『室町の王権—足利義滿の王権簒奪計画』, 75쪽).

으로, 권문체제론의 구로다는 천황=국왕으로 보아왔다. 미네기시 스미오(峰岸純夫)는 양자의 절충을 모색하여 이른바 '세트화된 왕권'론을 주장한다.[53]

미네기시에 따르면 일본의 왕권은 헤이안 후기인 원정(院政) 시기를 경계로 분열한다. 그 이유는 율령제와 대토지 소유제(장원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장원제가 발달하자 율령 체제는 크게 이완되었고 천황가도 어쩔 수 없이 장원의 집적에 나서 헤이시(平氏)와 겐지(源氏)로 대표되는 무사단의 힘에 의존하여 이들 장원을 관리했다. 그 결과 천황도 원(상황)도 무사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가마쿠라 막부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마찬가지였다. 막부는 위로는 천황을 받드는 형식을 취하면서 상황(원)과 권력을 분할했다. 미네기시는 이처럼 천황과 상황·막부 중에서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도 왕권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복합왕권론)을 폈다. 미네기시는 중세 일본의 왕권 보지자(保持者: 국왕)를 쇼군인가, 천황인가는 양자 택일적 문제로만 파악해 온 선행 학설을 예리하게 비판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시각의 복합왕권론을 무로마치 시대에 적용한 연구자가 이토 기요시(伊藤喜良)다.

이토는 중세 왕권을 구성하는 근거로서 ① 정치적·세속적 지배 권력, ② 관념적 권위·신분질서, ③ 혈통이란 세 가지 요소를 든다.[54] 특히 이토는 이마타니가 제기한 왕권의례, 신분제, 혈통, 이데올로기 등이 중세 왕권 문제를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토는 이마타니가 '황권'과 '왕권'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이마타니는 요시미쓰가 왕권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위 찬탈을 도모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토는 이 문제를 요시미쓰가 관념적 권위와 혈통에 약점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한다. "요시미쓰는

53 峰岸純夫, 「日本中世社会の構造と国家」, 『大系日本国家史』 2·中世, 東京大学出版会, 1975. 관점은 다르지만 곤도 시게카즈(近藤成一)도 원정 권력이 주종제적 지배와 통치권적 지배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쇼군 권력과 원정 권력의 공통성을 지적한다(近藤成一, 「中世王権の構造」, 『歴史学研究』 573, 1987). 왕권론의 정리는 水野智之, 「室町時代公武関係論の視角と課題」(『室町時代公武関係の研究』) 참조.

54 伊藤喜良, 「中世後期からみた王権」, 『中世国家と東国·奥羽』, 校倉書房, 1999, 125쪽.

강대한 권력이었지만, 권위와 혈통이란 왕권을 구성하는 두 요소가 결여"된 한계를 가졌다. 이처럼 복합왕권의 입장에서 보면 무가와 공가(천황)도 모두 단독으로 존립할 수 없고, 각각의 약점으로 인해 양자는 서로 결합한 형태로만 존재한다.

이토는 기본적으로 권문체제론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그 구조를 의례·제사권·혈통 등으로 설명했다. 공무통일정권론과 달리 무로마치도노와 왕조의 병립을 보다 강조하면서 왕조 측 권력이 비록 약체이긴 하지만 관념적 권위가 강했고 신분 서열의 원천이기에 국가 구성상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보았다. 또 공무 양속의 정치 기구는 공무통일정권론의 주장과 달리 서로 융합하는 일이 절대 없었고, 서로 '독립'한 정치 기구는 전주로 연결되었을 따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비록 요시미쓰는 공무 양 권력을 초월한 형태로 정치를 행했지만, "공무 양 권력 기구를 융합하여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다. 겨우 전주를 활용할 정도"였고, 요시미쓰 시기 이외는 "왕조 권력 측도 보다 명확하게 '자립'하고 있"었다.[55]

권문체제론을 계승·발전시킨 이토설은 복합왕권론을 바탕으로 무로마치 국가의 핵심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천황가의 관념적 권위·혈통을 이렇게까지 강조할 수 있는가? 이는 거꾸로 무로마치 막부, 슈고를 비롯한 무가 세력의 실력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가? 권문체제론을 그대로 과연 무로마치 시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등등 많은 의문점이 남고 이에 대한 이토의 답변은 구체적이지 않다. 다만 종래 소홀히 다루어 온 권위와 혈통이란 관념적 측면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한 점은 중요한 성과이고 이 점은 향후 연구에서 계승·발전시켜 나갈 부분이다.

2) 전국다이묘'국가'론의 의미

공무통일정권론과 더불어 무로마치 권력론을 대표하는 이론은 막부-슈고체제론이다. 막부-슈고체제론은 그 때까지 통설이던 무로마치 슈고영국제의

55 伊藤喜良,「中世後期からみた王権」, 130~132쪽.

개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슈고영국제란 무로마치 막부의 약체성과 슈고의 강대성을 강조하기 위한 학설이다. 이에 따르면 슈고는 막부에게서 각종 권한[사절준행권(使節遵行權)과 반제(半濟) 등]을 위임 받아 자국 영국 내에 존재하는 국인(國人)을 자기 부하로 끌어들여 재지를 장악함으로써 장원제를 붕괴시켜 나갔다. 슈고영국제론은 슈고를 중심으로 무로마치 막부 권력 구조를 파악하고 무로마치 막부도 이들 슈고의 연합정권으로 이해한다.[56]

그러나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슈고의 영국 지배가 결코 독립적이지 않았고 실제로는 큰 한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슈고 영국 내 국인층은 슈고에만 종속되지 않았으며 막부나 장원영주와도 다원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 슈고도 자립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재경(在京)하면서 무로마치 막부 권력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영국 통치가 가능한 존재였다. 슈고의 분국 지배도 장원제적 수취 기구에 여전히 의존했으며 국인 통제와 피관화(被官化: 가신화)도 불안정했다. 이처럼 슈고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슈고영국제론은 점차 부정되고 오히려 아시카가 요시미쓰 등 쇼군 권력의 전제성(구심력)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누마 무쓰미(田沼陸)는 막부와 슈고의 관계를 중시하고 양자가 연계된 보다 광의의 무가 권력 총체를 막부-슈고체제라 명명했다.[57]

그러나 막부-슈고체제론은 권력 관계 분석에 치중하여 지역의 자율성이란 흐름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58] 막부-슈고체제론은 막부·슈고·국인이란 삼자의 상호 관계 분석에 치중하여 재지 사회의 동향을 포함한 중세 후기 권력 총체의 구조와 특질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결과 재지의 동향을 시야에 둔 슈고영국제론을 대체하지 못하고 오히려 쇼군 권력론으로 축소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와

56 永原慶二, 『日本中世の社会と国家』, 青木書店, 1982.

57 다누마 무쓰미는 슈고가 공가 권력의 지방 지배를 담당했던 국아를 지배했고 단전(段錢) 징수를 통해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동시에 쇼군 권력의 지방 지배 거점임을 밝혀 막부-슈고 지배의 전국적 구조를 명확히 했다(田沼陸, 「室町幕府と守護領国」, 『講座日本史』 3, 東京大学出版会, 1970; 田沼陸, 「室町幕府·守護·国人」, 『岩波講座日本歷史』 7, 岩波書店, 1976).

58 山田徹, 「南北朝期の守護論をめぐって」, 『室町·戦国期研究を読みなおす』, 61쪽.

오카 쓰토무(川岡勉)는 ① 중앙 국가로의 구심력['위'(上)로부터의 규정성]과 ② 지역 사회의 원심력['아래'(下)로부터의 규정성]이란 양 측면을 동시에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9]

가와오카에 따르면 왕권이 분열되고 지역 사회의 자립성이 강화된 남북조 시기에는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쇼군 권력의 강화와 슈고 권한의 확대 모두를 필요로 했다. 무로마치 막부는 슈고의 재량권을 대폭 인정하는 쪽으로 국정을 개혁했고 슈고의 분권화 경향도 일정 정도 용인했다. 자립성이 강한 지역 사회 역시 이러한 슈고를 매개로 중앙정부와 연계를 모색했고, 이를 통해 무로마치 막부도 상당한 중앙 중심의 구심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슈고는 중앙 국가를 배경으로 지역 사회의 통합을 실현"했으며 "천하성패권(天下成敗權: 전국 처벌권)은 쇼군이 장악하고, 국성패권(國成敗權: 지역 처벌권)은 슈고가 장악하는 체제"가 출현했다.

가와오카 설은 무로마치 국가 체제를 "중앙 권문으로서 막부와 지역 권력으로서의 슈고가 상호 보완적인 결합으로 형성"된 체제로 보고 중앙과 지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 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자율성을 주로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만 파악하여 슈고를 막부 권력의 구성 요소이자 중세 후기 중앙의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으로 보는 등 사실상 슈고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한다.[60] 막부-슈고체제라는 권력 구조에 관심을 두는 이상 재지 사회에 관한 관심은 종속적이고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가와오카가 전국시대에도 독립적인 지역 권력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슈고권이 여전히 중요했다는 '전국기(戰國期) 슈고론'을 주창한 유력자 중의 한 명인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61]

59 川岡勉, 『室町幕府と守護権力』, 吉川弘文館, 2002.

60 가와오카 설은 근기(近畿)만을 분석했고 오슈·간토·규슈 지역은 누락했기 때문에 이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吉田賢司, 「室町幕府による都鄙の権力編成」, 『室町·戦国期研究を読みなおす』, 86쪽)

61 '전국기 슈고'론자들은 전국다이묘가 등장한 전국 시대에도 슈고가 중요했으며 전국다이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립적 성격이 강한 군(郡) 단위 '전국영주'(戰國領主)의 존재에 주목한다(今岡典和·川岡勉·矢田俊文, 「戦国期研究の課題と展望」, 『日本史研究』 278, 1985; 川岡勉, 「室町幕府-守護体制の変質と地域権力」, 『室町幕府と守護権力』, 吉川弘文館, 2002; 矢田俊文, 「戦国期権力の研究史」,

막부-슈고체제론이 무로마치 막부와 슈고를 중심으로 중앙의 권력 체제에 관심을 두었다고 한다면 나가하라 게이지(永原慶二)의 다이묘영국제론은 지역 사회와 재지영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국인영주의 발전 과정을 중시하는 나가하라는 일본 중세 사회를 장원제에서 재지영주제로 전환한 것으로 이해하고, 중세 후기 국가를 다이묘영국제로 파악했다. 나가하라에 따르면 16세기 전국 시대에 이르러 고대 이래 '도(都)와 비(鄙)', '중앙과 지방'의 전통적인 중앙 집중형 정치사회 질서는 일거에 해체된다. 그 배경에는 14, 5세기 농민의 '이에' 성립과 '이에'의 연합을 통합한 촌락공동체(惣)의 성립, 백성 상층의 가지자명주직[加地子名主職: 지방관·장원 영주의 징세 청부자인 명주가 연공 가징분(加徵分)으로 거둘 수 있는 권리]의 집적을 통한 소영주로의 발전이 존재한다. 슈고 다이묘와 국인 영주는 이들 소영주적 계층을 가신화(被官化)했고 이로 인해 중세 장원공령제는 해체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영주 계층 간에 복잡한 항쟁이 전개되고 그 과정을 거쳐 다이묘영국제가 성립한다. 전국다이묘는 주변 다이묘와 영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영역 국가라는 다이묘영국을 만들어냈다.[62]

그러나 재지 영주의 성장, 지역의 자립을 중시하는 나가하라의 다이묘영국제론은 그 후 커다란 비판에 직면했다.[63] 또 나가하라는 국인 영주에서 다이묘영국제로 재지영주제가 발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후의 연구에서 전국다이묘로 발전하는 데는 재지영주보다 오히려 전통적인 슈고직의 역할

『日本中世戦国期権力構造の研究』, 塙書房, 1998).

62 永原慶二, 『戦国期の政治経済構造』, 岩波書店, 1997, 1쪽. 나가하라는 특히 중세 전기의 일반적인 족단적 '이에' 권력과 달리 비혈연의 재지 소영주층을 널리 가신으로 끌어들여 군사적·권력적 기반에 편성한 점을 주목했다.

63 安良城盛昭, 『幕藩体制社会の成立と構造』, 御茶の水書房, 1969; 藤木久志, 「戦国期の土地制度」, 『土地制度史』 1(体系日本史叢書 6), 山川出版社, 1973. 그 주된 근거로서 ① 다이묘영국제가 주장하듯이 남북조 시기이후 장원제는 해체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장원영주가 장원의 일원적(一円的) 지배 구조로의 재편이 적극적으로 일어난 점, ② 전국다이묘 역시 장원체제에 기생하는 측면이 존재했고, 전국다이묘의 '재지 불장악' 경향을 보이는 등 실제로 통일적 재지 지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永原慶二, 「大名領国制の史的位置 ―研究史的検討」, 『戦国期の政治経済構造』, 岩波書店, 1997, 128쪽)

이 컸다는 사실도 밝혀졌다.[64]

이렇듯 나가하라의 다이묘영국제론은 사실상 와해되었지만, 전국 시대 다이묘 영국의 독자성과 발전 자체는 긍정하고 이를 한층 계승·발전시킨 연구자가 나타났다. 바로 가쓰마타 시즈오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① 국가는 '국'(國)과 '가'(家)의 통합체이며,[65] 전국 시대에 처음 출현했다. ② 새로 등장한 '국가'는 국민에게 국역을 부과했다. ③ 이러한 전국다이묘'국가' 체제는 국민국가의 형성과 밀접히 관련된다.

가쓰마타에 따르면 전국 시대에 이르러 국과 가가 하나로 합쳐지고 전국다이묘는 처음으로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66] 즉, 전국 시대의 '국가'는 주종제적 지배(家)와 통치권적 지배(國)가 통합된 것이다. 전국 다이묘는 "국가의 존속을 지상목적으로 하며, 자기 활동을 '국가를 위해'라고 칭해 구성원에게 충성을 강제하고 그 정책을 국가의 의사로 삼아 국법이란 형태로 실현시키려고 했다". 예를 들어 "모든 일(諸篇)은 국가(御國家)를 위해"(롯카쿠 씨: 六角氏), "분국의 평화(分國靜謐), 가문의 굳건함(家門御堅固)"(우에스기 씨: 上杉氏), "이에(家)의 붕괴는 국(國)의 붕괴라 할 것"(모리 씨: 毛利氏)이라 하듯이 전국 다이묘는 영국의 통치 이념으로 '국가'를 내세웠다. 이 경우 천하 지배권을 지닌 쇼군 권력과 국가를 지배하는 다이묘 권력은 서로 지배하는 대상과 영역이 달랐다.

그런데 전국다이묘는 새로 창출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영국 내 국민에

64 전국다이묘는 국군제(國郡制)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군(郡) 단위의 지배는 일반적이지 않는다는 나가하라의 학설은 부정되고 전국기에도 군 단위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마타니 아키라(今谷明)는 슈고의 군(郡)기구로 군봉행(郡奉行)·군대(郡代)의 실상을 밝혔다(今谷明, 「鎌倉·室町幕府と国郡の機構」, 『日本の社会史』 3·権威と支配, 岩波書店, 1987, 302쪽).

65 가쓰마타에 따르면 이 국가는 '국과 가의, 혹은 국과 일족과'(邦譯日葡辭書)라고 하듯이 다이묘의 가와 지역의 국이 합체된 개념으로서 전국다이묘는 이 '국가'에 자기 정체성을 표시했다. 또 다이묘가 영국 내 사사(寺社)에게 그 의무로서 '국가안전'의 기도를 명령한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때 '국가'는 일본국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勝俣鎭夫, 「戰国大名'国家'の成立」, 33쪽).

66 물론 이미 중세 시기부터 가령 도지(東寺)에서 "천하태평(天下泰平), 국가안전(國家安全)"의 기도를 올리고 있듯이 전국 시대 이전에도 '국가'라는 용어는 존재한다. 당초 중국에서 '국'은 성벽으로 구획된 도읍을, '가'는 사람의 거처를 지칭하는 글자였으나, 이 두 글자가 합친 '국가'는 황제 혹은 황제를 중심으로 한 가정(家政) 조직 및 그 외연으로 사용되었다. 일본에서도 율령에서 국가는 천황을 지칭하며 국가를 미카도(帝)라고 훈독한 사례가 많다(新田一郎, 『中世に国家はあったか』, 1~4쪽).

게 국역을 부과한다. 전국다이묘의 영국 지배 체제는 군역 체제로서의 관고제(貫高制)와 검지(토지조사)를 통해 그 기반이 갖추어진다. 전국다이묘는 이러한 군역체제를 매개로 사회 신분의 부여와 국민에게 국역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것이 전국다이묘가 전국 각지에 만들어 낸 '국가'이며 에도 시대에 이른바 번(藩)이란 형태로 계승되는 '국가'였다. 가쓰마타는 이를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으며 전국 시대부터 근세까지 동일한 성격의 사회로 파악한다.

그러나 과연 가쓰마타가 주장하는 바처럼 이 시기에 지역 '권력'을 뛰어넘는 '국가'가 전국적으로 성립했는가는 의문이다. 다케다·이마카와·고호조 씨에게 전형적으로 보이는 동국 국가형 다이묘와 모리 씨 등의 서국형 다이묘, 호소카와·롯카쿠 씨 근기형(近畿型) 다이묘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67] 각지에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지역 '국가'를 포괄하는 시대 전체상(혹은 국가상)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가쓰마타의 대답은 분명하지 않으며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68] 또한 막부·슈고 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지역사회 자율성과 분권적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도 명확하지 않다.

67 야마무로 교코(山室恭子)는 가쓰마타의 전국다이묘'국가'론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가쓰마타는 잇키 중(一揆中)에서 전국다이묘 권력이 성립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는 '서국형'의 모리 씨를 이용하고, '국가'가 전제적으로 지배하는 다이묘의 양상을 논할 때는 '동국형'의 고호조 씨를 이용한다. 가쓰마타는 전국다이묘'국가'가 전자에서 후자로 발전했다고 설명하지만 야마무로는 이는 서로 이질적인 것을 하나로 묶어 논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山室恭子, 『中世のなかに生まれた近世』, 吉川弘文館, 1991).

68 가쓰마타의 전국 시대 '국가'개념을 보다 엄밀히 추구한 연구자가 구보 겐이치로(久保健一郎)와 이케 스스무(池享)다. 구보 겐이치로는 고호조 씨 영국을 분석하여 고호조 씨 관계자가 사용하는 '국'의 용례가 '국가'(國家), '어국'(御國), '국법'(國法)으로 대별됨을 밝혔다. 이 중 '국가'는 다이묘 자신이 지배하는 객체인 '국'과 '가'이며, '어국'은 민중을 대상으로 영국의 위기 상황에서 전쟁 동원의 근거로서 사용되었고, '국법'은 다이묘의 기본적, 근간적 경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력·권한으로 해석했다. 또 '국가', '어국'은 '공의'(公儀), '대도'(大途: 큰 길)라는 말과 대비하여 사용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고호조 씨는 당주를 지칭하는 '대도' 개념을 '국가'보다 우위에 두어 전국다이묘 지배의 공권성과 함께 주군의 인격성을 체현하는 '대도'가 중요한 작용을 했음을 규명했다(久保健一郎, 「後北条氏における公儀と国家」, 『戦国大名と公儀』, 校倉書房, 2001). 한편 이케 스스무는 '국'에 '국'과 '가'의 통일체인 '국가'와 국 전체를 의미하는 '총국'(惣國)이란 용법이 있음을 밝혔다. 또 전국 시대 특징으로 민중의 생활 공간으로서의 '국'이나 국군제(國郡制)의 국이 아닌, 지역 공권력이 평화·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영역으로서 '국'이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했다(池享, 『戦国期の地域社会と権力』, 吉川弘文館, 2010).

4. 맺음말

이상에서 논의한 일본 중세 국가론을 분류하면 크게 ① 하나의 국가(권문체제론), ② 두 개의 국가(동국국가론), ③ 국가 존재의 부정(중세 무국가론)이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세 국가론은 주로 헤이안 후기부터 가마쿠라 시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무로마치 시대에 관해서는 이상의 세 가지 국가론의 입장을 조금씩 변경시켜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남북조 이후 중세 후기는 중앙 권력에 치중(공무통일정권론·막부-슈고체제론)하던가, 재지의 자율성 혹은 지역 권력의 자립성(지역사회론·전국다이묘'국가'론)을 강조하는 등 주된 관심 영역 자체가 크게 다르다. 이처럼 무로마치 시대를 보는 관점이나 연구 분석 방식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중세 전기와 달리 중세 후기는 통일된 시대 전체상·국가상 자체가 부재한 실정이다. 중세 전기처럼 분명한 형태의 국가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중세 후기 국가론의 커다란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중세 시대 전체상·국가상을 확립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통일된 시각이 없는 무로마치 시대상의 재정립이다. 이하 이 글에서 살펴본 논의와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문체제론의 극복이다. 권문의 쇠퇴기인 무로마치 시기는 권문의 통합에 따라 일원화가 촉진(구심력의 작용)되면서도 이와 동시에 자립적 지역 분권 세력이 성장(원심력의 작용)하여 권문 상호 간의 협력·분쟁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도미타 마사히로의 공무통일정권론이나 복합왕권을 주장하는 이토 기요시의 경우도 무로마치 시대에 권문체제론을 적용했으나, 권문 이외의 지역 분권 세력·재지 사회의 흐름까지를 포괄한 것은 아니었다. 가마쿠라 시기까지 비교적 잘 들어맞는 중세 권문체제론을 무로마치 시대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 과제로 남아 있다.[69]

둘째, 무로마치 시기 전기는 중앙 권력에, 후기는 재지 사회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방식·시각의 극복이다. 중세 후기 국가론의 부재도 여기에 주요 원인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시각의 이면에는 남북조를 통일한 중앙 권력이 전국 시대 이후 와해되고 이로 인해 지역 분권 권력이 대두했다는 통설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무로마치 시대를 중앙 권력의 몰락과 지역의 대두만으로 설명하는 단선론적 시각에 불과하다. 어찌 보면 이러한 시각은 고대 귀족의 몰락과 중세 무사의 등장의 대립만으로 중세 사회의 성립을 파악해 온 재지영주제론적 관점과 매우 닮아 있다.

그러나 중앙 중심의 구심력과 지역 중심의 원심력은 오닌의 난 이후 갑자기 '와해'되거나 별안간 '튀어 나온 것'이 아니라 무로마치 시대 내내 계속 길항하고 있었다. 특히 무로마치 시기 내내 '공무일통'과 '도비합체'로 상징되는 중앙 권력에로의 구심력은 계속 존속하고 있었다. 전국 시대 이후 재지와 지역 중심의 원심력이 커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이러한 중앙 중심에로의 구심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었다. 중앙의 몰락과 지방의 대두라는 단선론적 시각을 극복하고 종합화할 때 전국 시대 천황 권위가 부상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70] 여러 분열적 상황 속에서도 오다·도요토미 정권, 에도 막부로 이어지는 '통일'적 근세 국가가 출현할 수 있는 배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무통일정권론의 계승과 극복이다. 여러 가지 단점은 있으나 현재 무로마치 권력론의 도달점으로 평가되는 이론은 공무통일정권론이다. 물론 공무통일정권론이 공가와 무가의 권력 구조 분석에 그치고 무로마치 시대 전체를 포괄한 국가론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전

69 이하라 게사오(井原今朝男)는 권문체제론의 문제점으로 국가의 통합 기능을 과소 평가하고 권문 기능을 과대평가한 점을 들었다. 그는 권문의 사적인 가정(家政) 기구가 어떻게 국정(國政)을 담당했는가를 분석하여 권문과 국가의 상호 연계 구조를 규명하려 했다. 이하라는 이를 ① '직사변관기구론'과 ② '민중통합의례론'이라 명명했다(井原今朝男, 『日本中世の国政と家政』, 校倉書房, 1995). 이하라의 연구는 주로 원정과 가마쿠라 막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그의 연구 관점은 무로마치 시대에도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70 이마타니 아키라(今谷明)는 전국 시대 막부 권력이 쇠락하면서 천황·조정 측의 '치벌윤지'(治罰綸旨)의 부활과 무가의 관위(官位) 희구, 국군제적 틀의 존속 등에서 천황 권위가 부상했다고 주장한다(今谷明, 『信長と天皇 — 中世的権威に挑む覇王』, 講談社, 1992). 와키타 하루코도 관위 질서, 종교, 문화의 측면에서 동일한 결론을 도출했다(脇田晴子, 『天皇と中世文化』, 吉川弘文館, 2003).

주만을 분석하여 지나친 확대 해석이란 비판을 받고 있거나, 오닌의 난 이후를 설명할 수 없으며 근세로의 전망이 불분명한 점도 보완해야 할 점이다. 또 '통일'이란 용어도 오해의 소지가 크고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당시 사료상 용어로 사용되고 있던 '공무일통'의 '일통'(一統)이 무로마치 시대의 특성을 잘 반영한 용어로 보이며 학술적 개념으로도 보다 타당하다. 향후 공무통일정권론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새로운 무로마치 시대 전체상을 제시하려고 할 때 권력 구조 면에서는 '전주' 이외의 요소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혈통, 종교 이데올로기 등 종래 소홀히 다루어왔던 분야를 포함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남기학(2014),「鎌倉幕府論의 전개와 現狀」,『동양사학연구』126.

高橋典幸(2013),「鎌倉幕府論」,『岩波講座日本歷史』6 · 中世1, 岩波書店.

今谷明(1990),『室町の王権-足利義満の王権簒奪計画』, 中公新書.

大津透編(2006),『王権を考える』, 山川出版社.

富田正弘(1989),「室町殿と天皇」,『日本史研究』319.

上横手雅敬(1987),「鎌倉 · 室町幕府と朝廷」,『日本の社会史』3 · 権威と支配, 岩波書店.

水野智之(2005),『室町時代公武関係の研究』, 吉川弘文館.

勝俣鎭夫(1996),『戦国時代論』, 岩波書店.

新田一郎(2004),『中世に国家はあったか』, 山川出版社.

伊藤喜良(1999),『中世國家と東国 · 奥羽』, 校倉書房.

田沼陸(1976),「室町幕府 · 守護 · 国人」,『岩波講座日本歷史』7, 岩波書店.

井原今朝男(1995),『日本中世の国政と家政』, 校倉書房

井原今朝男(2012),『中世の国家と天皇 · 儀礼』, 校倉書房.

中世後期研究會編(2007),『室町 · 戦国期研究を読みなおす』, 思文閣出版.

川岡勉(2002),『室町幕府と守護権力』, 吉川弘文館.